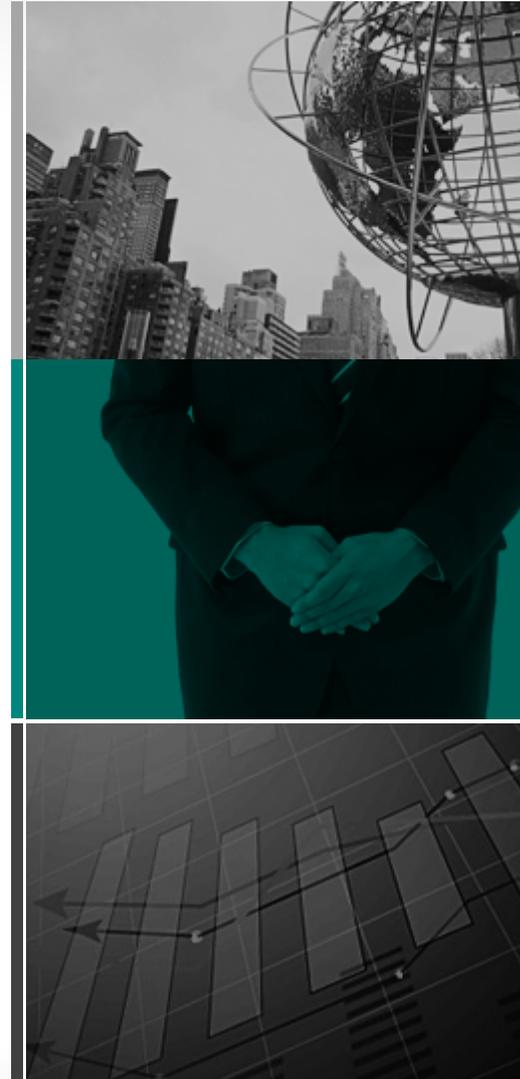


---

# 정부 규제와 한국 금융

---

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배현기



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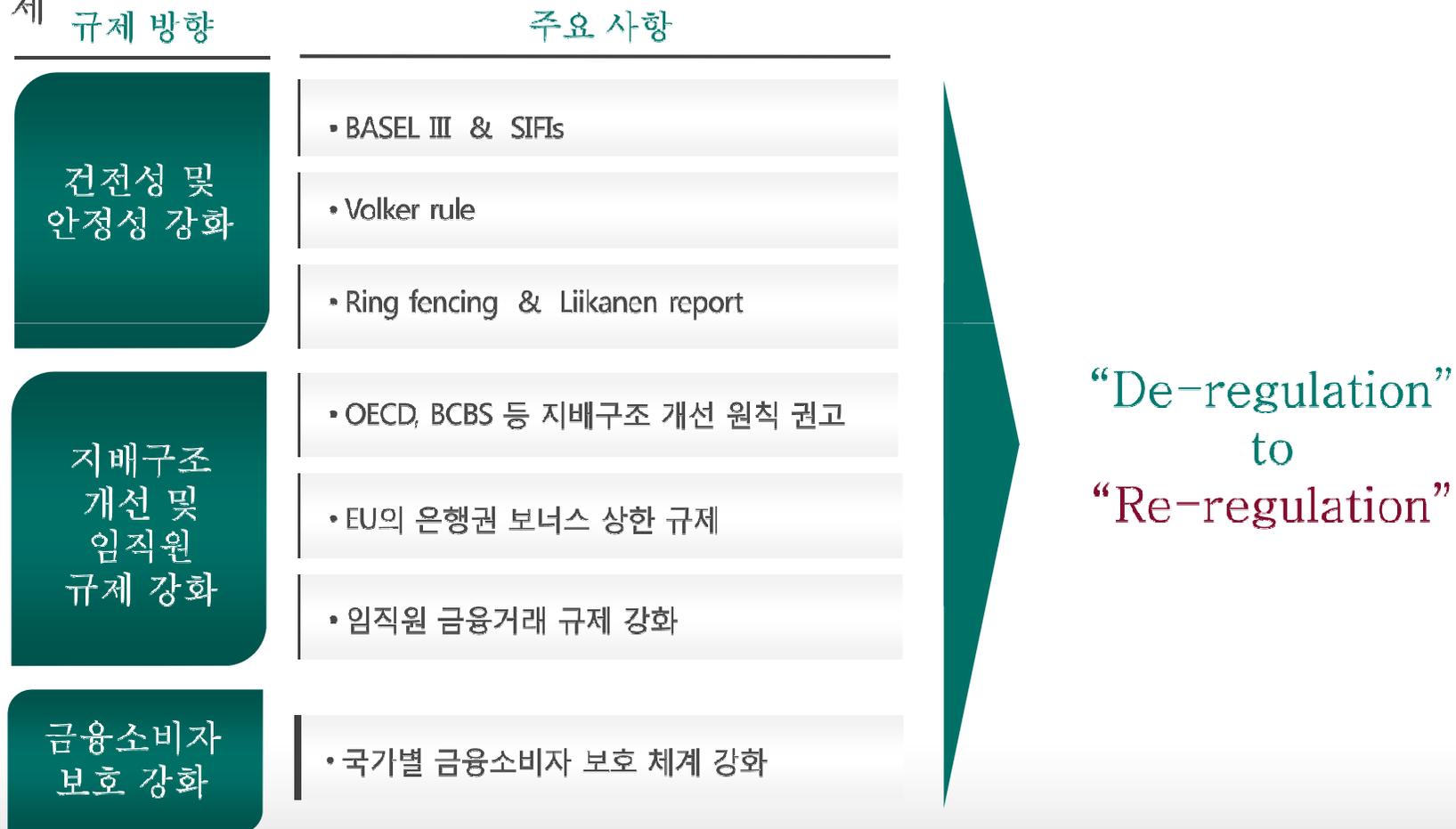
# Contents

---

1. 금융위기 이후 규제 패러다임 변화 : 탈규제 → 재규제
2. 한국의 금융규제 : 글로벌 트렌드 + 포퓰리즘
3. Column by Jamie Dimon
4. 금융회사의 반성 : 열린 새장 속의 날지 못하는 새??
5. 정부와 시장(금융)의 새로운 균형 : 안정성 + 혁신
6.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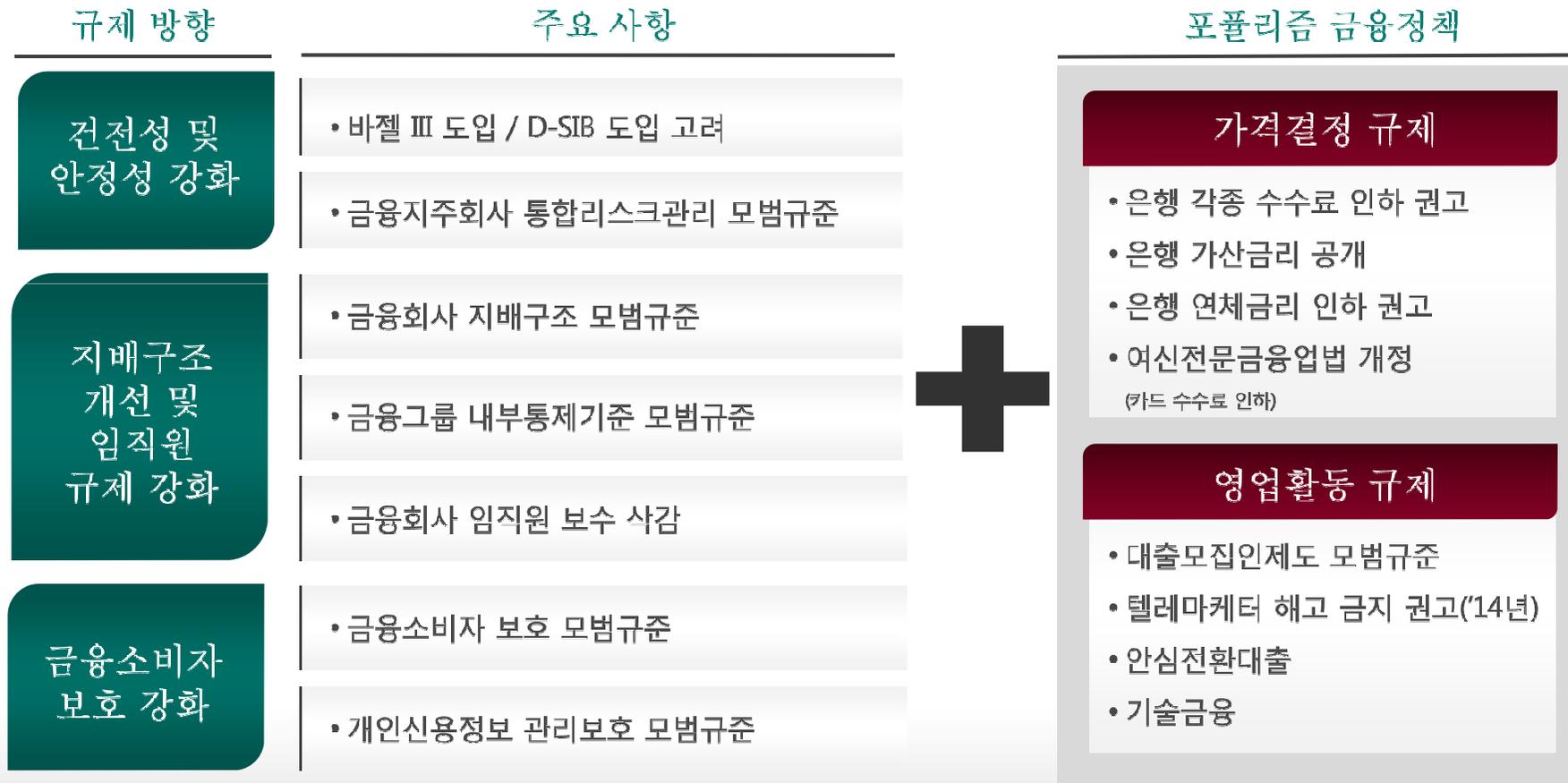
# 1. 금융위기 이후 규제 패러다임 변화 : 탈규제 → 재규제

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젤 III, 대형금융회사 규제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안정성 관련 규제 강화
-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, 임직원 보수 규제 등 금융회사 운영과 소비자 보호 규제도 강화 추세



## 2. 한국의 금융규제 : 글로벌 트렌드 + 포플리즘

- 건전성 강화, 지배구조 개선, 임직원 규제,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
- 금리 및 수수료 결정, 영업활동 관련 규제 등 포플리즘 금융정책이 더해져 금융회사의 공공성을 강조
- 모범규준, 행정지도 등 그림자 금융규제가 양산되어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더욱 저해



### 3. Column by Jamie Dimon (WSJ, 2009.7)

-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, 금융산업의 혁신을 막아선 안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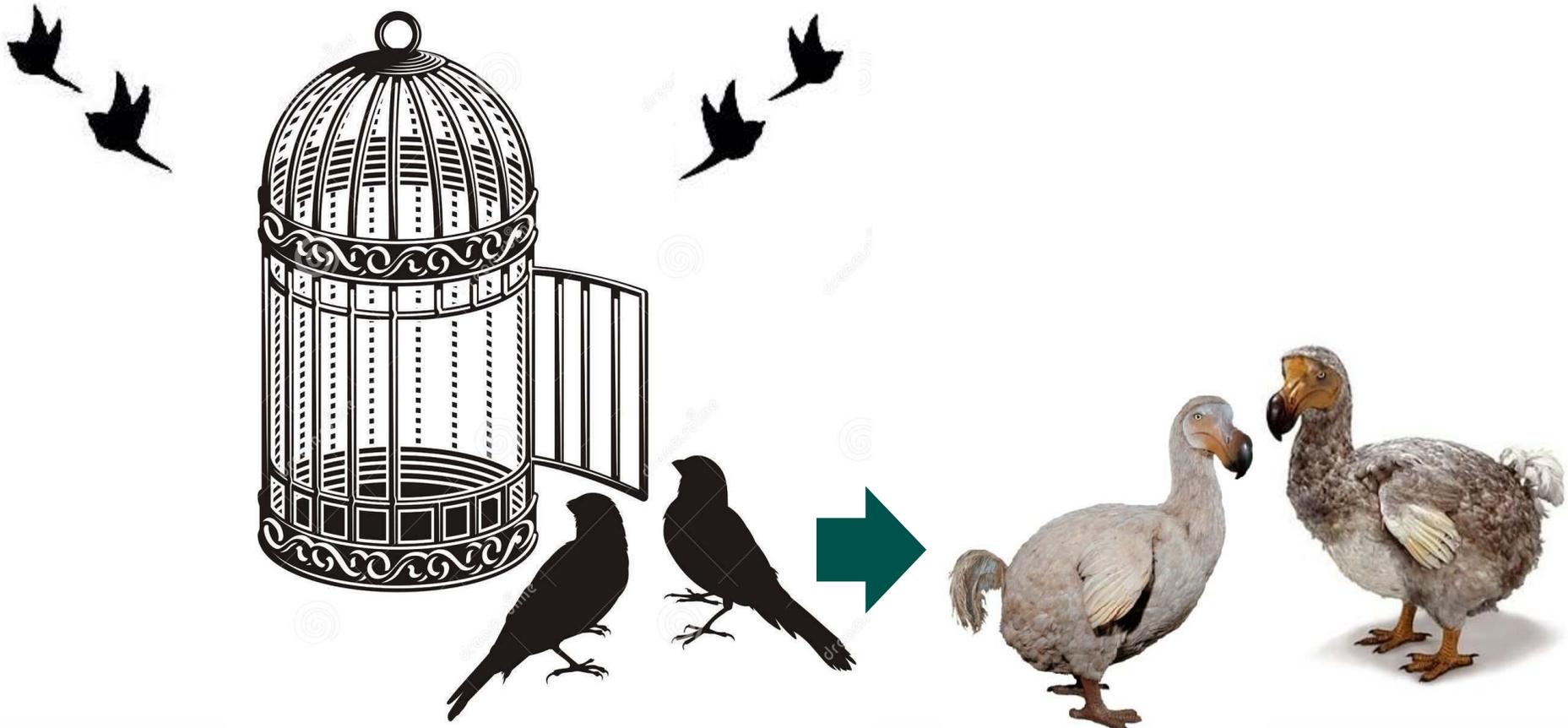
- “오바마 행정부의 금융규제 개혁안 중 단일 감독기구 설치 방안은 늦었지만 바람직하다.”
- “지금까지 규제가 없었던 '그림자 금융' 등 사각지대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어야 한다.”
- “파생상품 등 핵심적인 시장에서 감독권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증대하는 조치도 필요”
- “결과적으로 금융개혁은 금융시스템이 고객/주주/근로자, 종국적으로 사회에 가치를 창출하도록..”

그러기 위해선 '혁신'을 통해 자금을 배분하는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”

- “금융산업이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”

## 4. 금융회사의 반성 : 열린 새장 속의 날지 못하는 새??

- 한국 금융회사는 미처 혁신을 시도하기도 전에 금융위기로 인해 규제만 더 강화
- 규제에 익숙한 금융회사는 타율성에 젖어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, 점차 혁신과 변화를 회피하게 되



새장 속에 안주하던 새들은..

결국 날개가 퇴화 되어버린  
도도새가 될 것인가?

## 5. 정부와 시장(금융)의 새로운 균형 : 안정성 + 혁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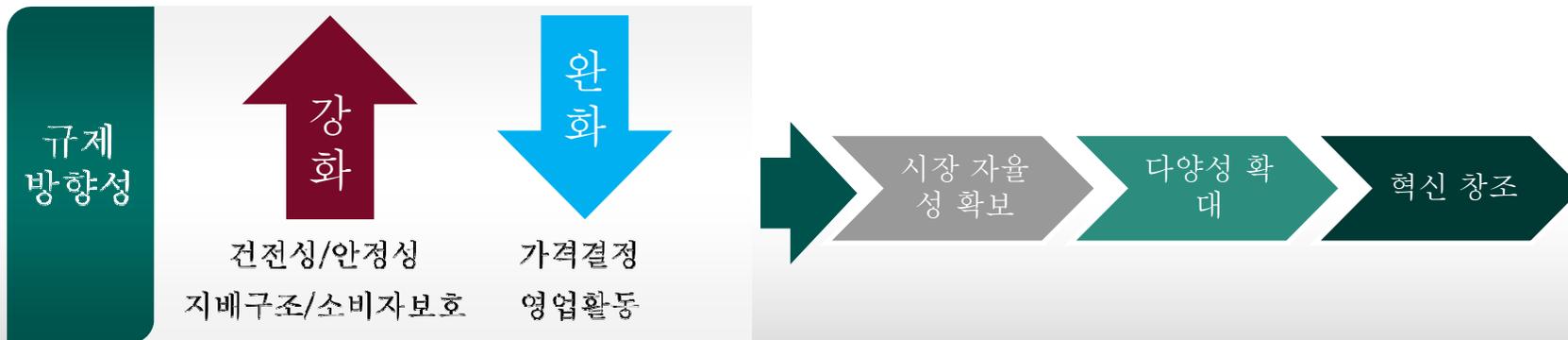
- 금융회사의 안정성과 건전성은 철저히 감독하되, 자율성 및 혁신을 유도
-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 수요자 관점에서 금융규제를 설계

Twin gap과 피터팬 증후군적 금융인식을 의식하는 금융회사는 타율경영, 현실안주적인 모습을 답습  
(최흥식)

정부의 역할은 선수/코치가 아닌, 제도 설계자 및 심판의 역할이 되어야 함  
(윤석현, 전성인)

향후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의 Top-down 방식에서 Bottom-up 방식으로 전환 필요  
(윤석현, 전성인)

자본주의 4.0 시대에는 금융자유/혁신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경제 안정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금융시스템 필요  
(아나톨 칼레츠키)



## 6.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

업종간 칸막이 영업규제 완화

금리·수수료 등 가격결정 관련 규제 완화

진입 및 퇴출 규제 등 자율화

금융감독 및 금융법 체계 개편

그림자 금융규제 최소화

사인 간 계약 개입 자제



금융회사의  
자율경영·책임경영  
문화 정착